

'금추' 된 배추에...가을배추 재배면적 늘었다

전남 3289ha 1년 전보다 1.9% ↑ ...전국 면적 24% 차지 1포기 4000원대로 내려...정부 김장재료 수급대책 마련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가을배추 최대 주산지인 전남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3289ha로, 1년 전보다 1.9% (63ha) 증가했다.

전남 가을배추 면적은 2년 전 3349ha에서 지난해 3226ha로 줄었다가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면적이 다시 늘었다.

전남은 전국 가을배추 재배면적의 23.6%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전남에 이어 충북(2181ha), 경북(2143ha), 강원(1588ha), 전북(1413ha) 순이었다.

충북(-5.4%)과 충남(-2.8%), 경기(-3.6%) 등

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지만 경북 면적이 25.2%(431ha ↑), 강원 9.9%(142ha) 늘면서 전반적으로 4.6%(608ha) 증가했다.

올해 전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3953ha로, 이는 2014년(1만5233ha) 이후 가장 넓은 것이다.

통계청은 재배면적 증가에 대해 배추를 심는 시기(정식기)인 지난 7~9월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 기간 배추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229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0원)보다 121% 상승했다.

배추 시장 공급량이 늘면서 광주 양동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000원대로 내려왔다.

지난 2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값은 4560원으로 내림 추세지만 1년 전(4000원)보다 14.0% 높은 가격이다.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6340ha로 1년 전보다 422ha(7.1%) 증가했다.

정식기(7~9월) 무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1311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620원)보다 111.5% 오르는 등 무 가격 상승이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무 재배면적은 2013년(7532ha) 이후 가장 넓은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1244ha), 충남(1164ha), 전북(1099ha), 전남(1071ha), 강원(535ha) 순이었다.

정부는 김장 부담을 덜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총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마늘의 경우 비축물량 5000톤을 간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공급 조건은 '소비자 가격

30% 할인'이다.

김고추는 매주 500t 정도씩 총 1400t을 풀고 양파는 매주 240~500t씩 총 36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전일염 생산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 비축물량 중 500t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전일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갖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 등 820곳에서 다음 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에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도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전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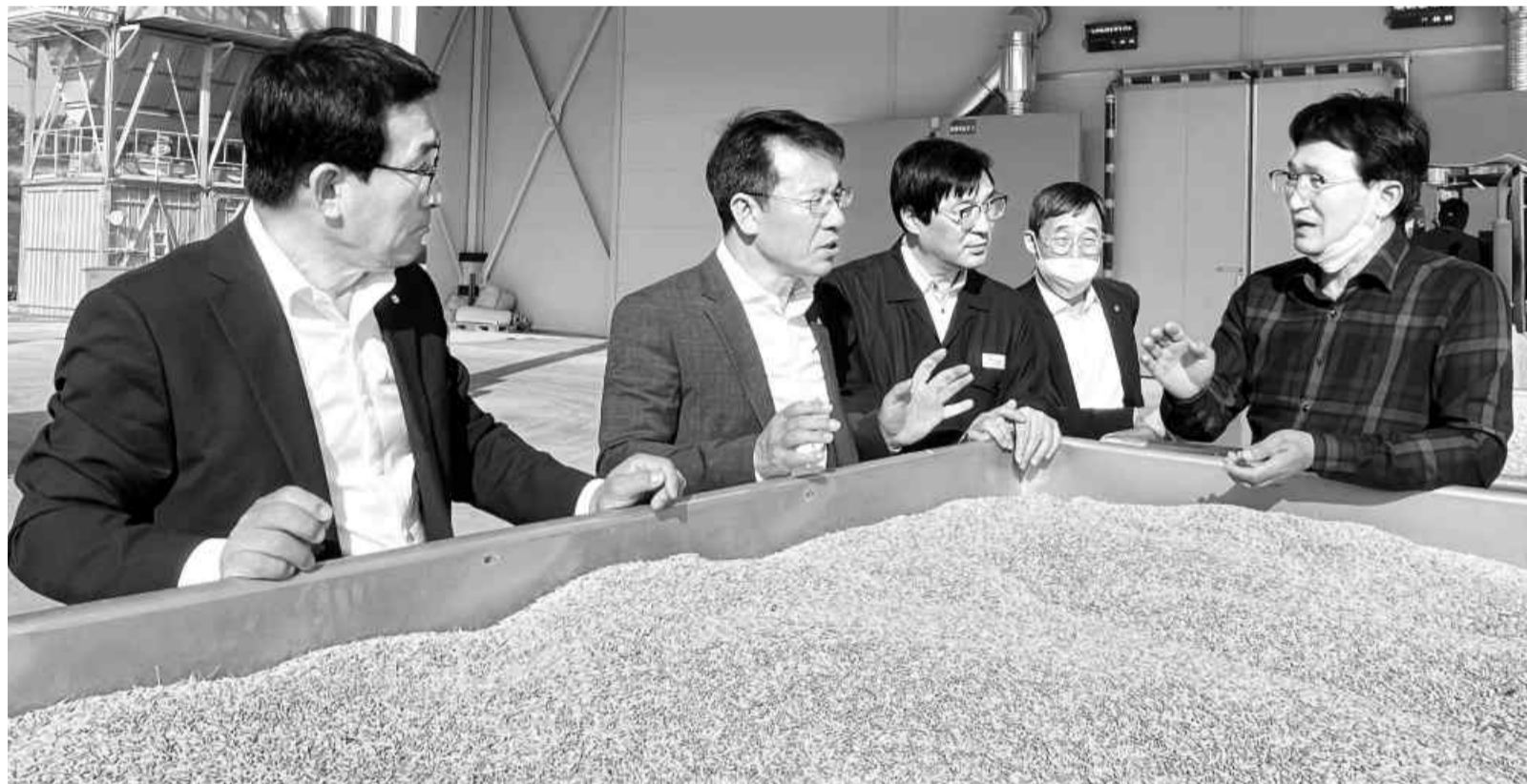
또 다음 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17~19일 6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장 규모는 21.8포기(4인 가구 기준)로 지난해(22.1포기)보다 감소했다.

가구별 김장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5.6%로 많았고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30.2%로 뒤를 이었다.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자 중 34.6%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쌀 '38만톤' 매입 예정...생산량 52% 차지



박서홍(왼쪽 두 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나주시 동강면 나주시농협쌀조공법인을 찾아 공공비축 쌀 수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2022년산 쌀을 예상 생산량의 52%가량인 38만t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쌀(정곡)은 74만t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쌀은 총 19만t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전남 대표 품종인 새청무와 신동

진, 새일미, 일미 등이다.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나주시 동강면 나주시농협쌀조공법인을 찾아 공공비축 쌀 수매 현장을 살폈다.

정부는 지난달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 값 회복을 위해 공공비축 쌀은 전년보다 10만t 증가한 45만t, 시장격리곡은 구곡 10만t과 신곡 35만t 등 45만t을 수매할 방침이다.

공공비축 산물비는 오는 11월30일까지, 포대비와 시장격리곡은 연말까지 매입한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가버를 최대한 매입해 농가 편의를 높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수매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쓰겠다"며 "전남농협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 중합상환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축협 60세 이상 조합원 비중 77%

광주 73.8% 비중...고령화 심화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남 농·축협 60세 이상 조합원 비중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원은 모두 28만6044명으로, 전국 조합원의 13.5%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조합원을 연령대로 보면 40대 미만은 4969명으로, 1.7% 비중을 그쳤다.

40세 이상은 5.3%(1만5209명), 50세 이상은 15.8%(4만5329명) 등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조합원은 22만537명으로, 전남 조합원의 7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중 76.4%(211만3437명 중 161만5315명)를 웃도는 수치다.

광주지역 농협 조합원은 전국의 1.1% 비중인 2만274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조합원은 1만6784명으로, 73.8% 비중이었다.

지역별 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은 경북이 가장 많았고, 전남, 경기, 충남, 경남, 전북 등이 뒤를 이었다.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면 임여금 배당,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 세금 우대 혜택 등을 준다. 하지만 청년 농민들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 비율은 76.8%로 2017년 68.6% 대비 8.2%포인트 증가했지만 40세 미만은 0.2%포인트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이동 상담실 운영

법률 상담·소비자 권리 보호 등

농협 광주지역본부부는 지난 26~27일 이틀간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농업인 140여 명을 대상으로 '농협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의 대표적인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인 '이동 상담실'은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영농 생활과 밀접한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농촌 현장을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률과 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초빙한 전문위원들은 생활법률 강의와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개인별 맞춤 상담도 진행됐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전문가와 만나 생활 속 불편함과 고충을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인 실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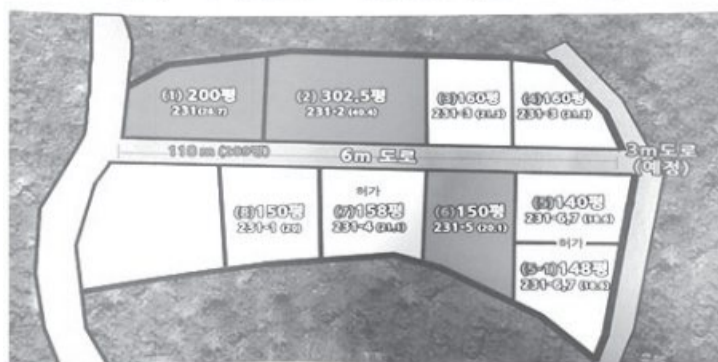
장성토지 매매 (분양)

경매교육 [기초반]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정)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